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조 은 경[†]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 피해율은 낮는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기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남자 220명과 여자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상한대로, 여성 응답자들은 남성 응답자들에 비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범죄 발생시 신체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함에 있어서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주거 환경의 무질서 요인과 지각된 범죄 피해 가능성이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파출소까지의 거리 및 범죄 관련 TV 시청 빈도 등이 유의미한 예측 변인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피해 가능성 뿐만 아니라 성격 특질 불안과 나이 등 좀 더 심리적인 변인들이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성차

* 본 연구는 1995년도 한림과학원 탐공동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조은경, (200-702)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번지,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ekjo@hallym.ac.kr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와 관련하여 사람에게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하는 정서 반응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다(조은경, 1997).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결정과 각종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서구의 범죄학자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 정도 및 이전에 피해자가 되어 본 경험 또는 다른 피해자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비율은 가장 낮다(Warr, 1984).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에서 성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예측해주는 변인이다¹⁾. 미국이나 한국에서 실시된 범죄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여성보다 남성 범죄 피해자가 훨씬 많은데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여성들은 범죄 피해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남성보다 범죄 예방적 행동을 하는 비율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박순진, 최영신, 2000; 심영희, 김준호, 최인섭, 1992; 최인섭, 김지선, 1997; 최인섭, 박순진, 1995;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88). 우리 나라에서 범죄에 의한 신체적 피해의 정도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피해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표 1, 표 2 참고).

1)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또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연령은 서양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즉,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증가) 우리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층에서 오히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차이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최인섭, 김지선, 1997; Ito, 1993).

여성의 범죄 피해율은 낮은 데 반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강하게 경험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아직 명료한 해답이 없는 문제로 남아있다. 여성의 범죄 피해율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간의 불일치는 이론적으로 정서와 실제 사건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안전과 삶의 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과 구조를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여성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전감이 낮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심리적·행동적으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감수해야 한다.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는 범죄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비현실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적 안전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볼 때 범죄피해 현실과 다소 괴리된 여성의 범죄에 대한 강한 두려움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성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의 차이는 일관성 있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어떤 기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별로 없었다. 본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정도의 성차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일반적 접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항은 “밤에 집 주변(이웃)을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개인이 범죄 피해자가 될

표 1. 범죄 피해자 성별 분포 (2000년)

	전체 범죄 피해	재산범죄	강력범죄
남	536,230 (73.7)	154,916 (72.6)	22,537 (56.4)
여	191,518 (26.3)	58,405 (27.4)	17,419 (43.6)
계	727,748 (100.0)	213,321 (100.0)	39,956 (100.0)

주. 단위: 명(%). 범죄백서 (2001). 대검찰청.

표 2. 범죄의 신체적 피해 상황

연도	상해		사망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95	337,218 (68.7)	141,664 (28.9)	7,099 (1.4)	4,556 (0.9)	490,537 (100)
1996	353,185 (68.6)	151,939 (29.5)	7,045 (1.4)	2,881 (0.6)	515,050 (100)
1997	342,649 (68.8)	146,402 (29.4)	5,892 (1.2)	2,843 (0.6)	497,786(100)
1998	328,223 (68.6)	143,863 (30.1)	4,113 (0.9)	2,103 (0.4)	478,302 (100)
1999	379,371 (66.9)	177,650 (31.3)	6,562 (1.2)	3,220 (0.6)	566,803 (100)
2000	406,117 (66.9)	189,852 (31.3)	7,749 (1.3)	3,627 (0.6)	607,345 (100)

주. 단위: 명(%). 범죄백서 (2001). 대검찰청

위험성에 대한 지각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 질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지로 범죄의 두려움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Garofalo, 1979).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다른 유형의 문항들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감과 그로 인한 행동의 제약을 물어보는 문항(예: “과거 (년 동안 범죄 때문에 활동을 제한하거나 바꾼 적이 있습니까?”)이나 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물어보는 문항(예: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절도, 강도, 폭행, 또는 강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당신이 (특정 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이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범죄 피해를 입은 과거의 경험, 범죄 피해자가 될 실질적인 위험 정도, 역할 사회화 과정(예: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유형화 정도), 범죄와 피해에 대한 대중 매체의 영향에 범죄 관련 프로그램의 영향), 공식적 방어기제(예: 경찰)의 효율성에 대한 지각, 지역 사회의 구조적 변화(예: 인구의 이동, 물리적 변화), 사회적 통제의 약화(예: 지역 사회 무질서 증거들) 등이 주로 연구되어졌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성격과 영향력에 대한 상세한 개관은 조은경(1997)이 시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기여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성차를 살펴보는 데 초점

을 맞추고 있으므로 각 변인들에 대한 기술에는 지면을 많이 할애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근원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크게 피해경험적 접근과 사회통제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해경험적 접근

피해경험적 접근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 피해의 경험이나 실제적인 범죄율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초래된다고 본다(Lewis & Maxfield, 1980). 즉, 직접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의 피해나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적으로 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범죄 피해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범죄 피해를 적게 입는 사람들(예: 여성, 노인)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낀다는 현상은 이 접근의 한계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접근 방법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범죄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통제적 접근

사회통제적 접근은 사회해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 근거한 것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 사회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무질서의 징표들(disorder 혹은 incivility)이 증가함을 인식하게 되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Taylor & Hale, 1986).²⁾ 지역사회

2) Incivility factors는 이웃에서 볼 수 있는 버려진 빈집이나 상점, 빈 공터, 쓰레기, 소음, 불량 청소년, 결인, 창녀, 술 취한 사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은경(1997)에서는 '반문명적 요인'이라고 번역되었으

의 무질서는 사회 통제의 기제들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음을 암시해주며 주민들이 유지해왔던 가치와 기준들이 위협받고 있음을 신호해주는 것이므로 주변환경의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접근에도 한계점이 있는데, 사회 무질서의 근원에는 대개 사회계층이 자리잡고 있어서 사회계층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를 측정할 가능성이 높고, 범죄와 무질서를 개념적으로 구별하기가 모호하며, 범죄율과 피해경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성차

공식통계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 실제적인 범죄 피해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에 비해서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이러한 성차는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요인들 이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성차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여성의 신체적 취약성에 의한 설명과 특정범죄에 대한 취약성에 의한 설명이다.

신체적 취약성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물학적, 신체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자신을 방어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성과 노약자들은 공격적 행동을 주로 하는 젊은 남성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 그들의 방어 수단 부족, 통제의 상실, 결과의 심각성 등이 취약성을 결정하는 잠재적인 변인들이다. 두려움

나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어 본 논문에서는 '환경적 무질서 요인'으로 번역하기로 하였다.

은 i) 무시할 수 없는 위협에의 노출, ii) 효과적인 방어 수단 또는 도피 가능성의 부족상실, iii) 심각한 결과에 대한 예견 등의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뒤의 두 요인들은 취약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Killias, 1990). Maxfield(1984)가 샌프란시스코시의 3개 지역을 비교 조사한 결과, 연령(취약성의 간접적 척도), 주거 지역(위험 요인의 간접적 척도), 그리고 범죄에 대한 민감성(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로 측정됨)이 모두 상호 작용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함을 발견하였다. 즉, 여성이 신체적으로 나약하고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간에 신체적인 차이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해 더 강화를 받는다 (Garofalo, 1977). 여성은 의존적이고, 온순하고, 수동적이 되도록 사회화되며, 두려움과 같은 정서를 표현하도록 허용되는 반면에, 남성은 강인하고, 공격적이고, 섬세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도록 사회화된다. 따라서 여성은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범죄 발생시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데에도 제약받지 않으므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남성보다 높아지게 된다.

특정범죄에 대한 취약성

특정 범죄, 특히 성폭행은 거의 대부분 여성에게만 발생한다. 성폭행은 대개 남성 범죄자의 폭력에 의한 것으로 여성은 그에 대항해서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우 취약하고, 일단 발생하면 여성이 입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남성이 평소에 노출되지 않는 성적인 공격에 대해서 여성이 더 취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여성의 전반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증가하게 된다 (Riger, Gordon, & LeBailly,

1978).

본 연구에서는 남녀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감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주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남녀 성차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없었고, 따라서 위의 가설들 중 어떤 것이 실제로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도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범죄 두려움 증가 요인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상대적인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범죄 피해 경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식 정도(간접적 피해경험), 범죄 발생 시의 신체적 취약성, 지역사회의 환경적 무질서, 언론의 범죄 보도를 접하는 정도, 성격 특질로서 불안한 정도 등을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방 법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 453 명으로서 남자가 220명, 여자가 233명이었다. 조사 대상의 표집 방법은 완전 무선 표집이 아닌 편의 표집으로서 조사원들의 주거 지역 또는 활동 지역 내에서 통장 집을 중심으로 한 집 걸러 한 명씩 표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성별과 연령층을 구분하여 18세부터 20대 이하(남, 여 각 65명), 30대(남 59명, 여 62명), 40대(남 54명, 여 60명), 50대 이상(남 42명, 여 46명) 연령층의 남녀가 비슷한 수가 되도록 선정하였다. 대학에 재학중인 총 40명의 남녀 조사원들은 2시간 정도

의 사전 교육을 받았다. 한 가구 내에 조사 대상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을 선정하였고 가급적 영업 장소가 아닌 집에서 면접하였다. 면담 조사가 끝난 뒤 응답자들에게는 2,000 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사례를 하였다.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과부족하였기 때문에 간편 표집을 사용한 조사로 반응의 추세를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두었다.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포함하여 선행 연구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사회 인구학적 배경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결혼 상태, 가족의 수, 가족의 수입, 주거 환경 등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물어보았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다른 연구(Garofalo, 1979)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지각된 안전감'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즉,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가를 측정하였다: 대낮에 혼자 동네에서 걸어다니기, 밤에 혼자 동네에서 걸어다니기,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 밤에 혼자 택시를 타는 것, 서울 시내 다른 곳에 비교해서 우리 동네의 안전도.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가되었는데 ① "전혀 안전하지 않다"부터 ④ "매우 안전하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덜 안전하다고 느끼며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위의 5문항들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을 역코딩한 뒤 평균하여 두려움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범죄의 피해 가능성

이 요인은 막연히 지각되는 안전에 대한 위협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범죄의 피해를 입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지각된 안전감은 추상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를 물어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의 발생을 의식해서 그렇게 느끼는지를 측정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범죄가 응답자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구성하는 요인을 더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폭행, 성폭행, 노상 강도, 택시 강도, 공갈 협박, 납치 또는 인신매매, 주거 침입 절도, 소매치기 등의 여덟 가지 유형의 범죄가 자신에게 일어날 지 모른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각 범죄의 피해 가능성은 ①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부터 ④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로 구성된 4점 척도에서 평가되었다.

범죄 피해 경험

이 요인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지각된 안전감)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실제로 응답자의 피해 경험에서 유발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구성되었다. 폭행, 성폭행, 노상 강도, 택시 강도, 공갈 협박, 납치 또는 인신매매, 주거 침입 절도, 소매치기 등의 여덟 가지 유형의 범죄 피해자가 되어 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다.

범죄 피해자를 알고 있는 정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았을지라도 주변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을 알

고 있으면 자신도 그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요인에서는 위의 여덟 가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

신체적 취약성

범죄 발생시 느끼는 신체적 취약성 때문에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택시 강도, 밤길에 만난 불량배의 폭력, 인신매매 납치, 주거 침입 절도, 소매치기 등의 범죄가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얼마나 다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서 ① “전혀 다치지 않을 것이다”부터 ④ “아주 많이 다칠 것이다”의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환경적 무질서

응답자 주변의 환경이 무질서 요인들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 근처에서 낙서가 된 벽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집 근처에 세워둔 자동차가 파손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집 근처에 쓰레기가 버려진 것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집 근처에서 동네 불량배들이 모여 있는 광경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습니까?” “집 근처에 밤에 가로등이 얼마나 켜져 있습니까?” 등의 5개 항목을 물어보았다. 각 문항은 ① “전혀 볼 수 없다”부터 ④ “항상 볼 수 있다”로 구성된 4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이 요인도 응답자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지각한 바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가 사는 곳의 환경적 무질서 정도와 실제로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환경적

무질서 정도를 더 강하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의 범죄 보도를 접하는 정도

범죄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근원이 TV 뉴스, 라디오 뉴스, 신문, 월간지, 타인 중 어떤 것인지, 신문의 범죄 기사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평가 척도: ① 전혀 보지 않는다, ② 가끔 본다, ③ 자주 본다, ④ 반드시 본다), TV 뉴스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평가 척도: ① 전혀 보지 않는다, ② 한 달에 2-3회, ③ 일주일에 1회, ④ 일주일에 2-3회, ⑤ 일주일에 4-5회, ⑥ 매일), 조사 당시 주요 TV 채널에 방영되었던 범죄 사건을 다루는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경찰청 사람들, 사건 25시, 추적 60분)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평가 척도: ① 전혀 본 적이 없다, ② 한 두 달에 한 번, ③ 2-3주에 한 번, ④ 매주) 등을 조사하였다.

사회적 지지

만약 범죄가 발생했을 때 생활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사회적 통제감을 느끼게 해주며 상대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파출소나 경찰서이며, 비공식적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웃이나 친지일 것이다. 따라서 본 설문지에는 파출소나 경찰서가 집에서 걸어서 몇 분 걸리는 거리에 있는지,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 도움을 청할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특질 불안

주변 환경과 피해 경험 등에 관계없이 일반적

으로 불안을 강하게 느끼는 성격을 지닌 사람은 범죄에 대한 불안도 따라서 높을 것이다. 응답자의 성격 특질적인 불안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단축형 Taylor Manifest Anxiety Scale(TMAS; Bendig, 1956)이 사용되었다. 번역된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 alpha)는 .66이었다.

결 과

본 연구는 주로 상관계수와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SPSS-PC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대학 재학 또는 대학 졸업이 55.5%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90.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녀 응답자의 교육 수준의 분포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5, N = 453) = 34.15, p < .0001$. 남성 응답자들은 대학교 졸업자나 대학 재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여성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졸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직업은 사무직(18.3%), 판매서비스직(16.3%), 주부(25.4%), 학생(21.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이하 응답자의 대부분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들 중에서는 사무직(29.1%)과 판매/서비스직(24.5%), 학생(2.1%)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 응답자들 중에서는 가정주부(48.9%)와 학생(21.7%)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34%는 미혼이었으며 61.1%는 기혼자였다. 남녀 응답자의 결혼 상태는 다른 분

포를 보였는데 남성 응답자 중 기혼자는 38.1%였고 여성 응답자 중 기혼자 비율은 30.0%였다, $\chi^2(4, N = 452) = 12.83, p < .01$.

한 달 수입이 150만원 미만이라고 한 응답자는 16.1%밖에 되지 않았고 61.6%가 200만원 이상이라고 한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본 조사의 표본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의 한 달 평균 수입에서는 남녀 응답자간에 차이가 없었다, $\chi^2(6, N = 451) = 6.24, n.s.$.

응답자의 주거 형태는 단독 주택과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전체의 82.3%). 응답자의 77%가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고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약 22%밖에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단독 주택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으며 6%만이 상가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유흥가나 역주변 등 소위 우범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는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조사에 표집된 응답자들의 직접적/간접적 범죄 경험이나 범죄 정보 등에 어떤 특징적인 편파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그러나 주거 형태, 주택소유 여부, 주거 지역 환경 등에서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다(χ^2 검증 모두 유의미하지 않음).

개별 조사 문항에 대한 남성과 여성 응답자 비교

남성과 여성 응답자들이 유의미한 반응 차이를 나타낸 문항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각된 신체적 취약성, 범죄 기사를 읽는 정도 등이었다. 그러나, 피해 가능성 지각, 범죄 피해를 입은 경험, 환경적 무질서 요인에 대한 지각, TV 프로그램 시청 빈도 등에서는 남녀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전체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평균은 2.02(SD = 0.60)으로서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응답자들은 낮에 혼자 동네에서 걸어다니는 것보다 밤에 혼자 동네에서 걸어다니는 것이 더 두렵다고 느꼈다, $t(452) = 22.96, p < .0001$. 그리고 밤에는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혼자 동네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나($t(452) = 16.81, p < .0001$) 혼자 택시를 타는 것($t(451) = 19.37, p < .0001$)이 더 위험하다고 느꼈다. 약 82%의 응답자들이 서울 시내 다른 곳에 비해서 자신의 동네는 다소 혹은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남녀를 비교했을 때, 여성 응답자들은 대낮에 혼자 동네에서 걸어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밤에 혼자 동네에서 걸어다니기,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 밤에 혼자 택시를 타는 것에 대해서 모두 남성 응답자들보다 불안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자신의 동네가 서울 시내 다른 동네에 비해서 더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남녀 응답자의 반응에 차이가 없었다(표 3 참고).

범죄의 피해 가능성과 피해 경험

전체 응답자들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소매치

기와 주거침입 절도 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지각했으며 자신이나 가족이 성폭행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과 납치 또는 인신매매를 당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지각했다. 그러나 범죄 피해 가능성 지각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4 참고).

응답자가 직접적으로 범죄의 피해를 입은 정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피해 경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소매치기(42.4%)와 주거침입 절도(34.8%)였으며, 폭행과 공갈 협박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응답자도 상당히 있었다. 앞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지각에서 소매치기와 주거침입 절도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응답자들의 피해 경험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택시강도, 성폭행, 납치/인신매매 등은 피해자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각종 범죄의 피해를 입은 응답자의 비율에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

간접적으로 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동일한 8개 범죄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응답자들은 소매치기(73.8%)와 주거침입 절도(70.1%) 피해를

표 3.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남녀 비교

문항	전체	남성	여성	t 값
밤에 혼자 동네에서 걸어다니기	2.35 (.89)	2.16 (.89)	2.54 (.86)	4.59 ***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	1.74 (.77)	1.59 (.73)	1.88 (.79)	3.98 ***
밤에 혼자 택시를 타는 것	2.58 (.97)	2.10 (.86)	3.03 (.84)	11.74 ***
대낮에 혼자 동네에서 걸어다니기	1.47 (.64)	1.41 (.64)	1.53 (.64)	1.98 *
서울 시내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 동네	1.95 (.71)	1.93 (.76)	1.97 (.66)	.64
범죄에 대한 두려움 평균	2.02 (.60)	1.84 (.62)	2.19 (.53)	6.49 ***

주. 평균(표준편차). * $p < .05$, *** $p < .0001$

① ‘매우 안전하다’ - ④ ‘전혀 안전하지 않다’

표 4. 범죄의 피해와 관련된 변인들의 결과

범죄명	피해가능성		피해경험(%)		피해자 알(%)	
	남	여	남	여	남	여
폭행	2.03 (.75)	2.01 (.68)	44 (20.0)	40 (17.3)	149 (67.7)	126 (54.5)
성폭행	1.71 (.68)	1.69 (.66)	0 (0.0)	2 (0.9)	41 (18.6)	46 (19.9)
주거침입 절도	2.18 (.74)	2.15 (.75)	76 (34.5)	81 (35.1)	158 (71.8)	158 (68.4)
소매치기	2.29 (.75)	2.34 (.80)	84 (38.4)	106 (46.3)	161 (73.2)	172 (74.5)
노상강도	2.04 (.70)	2.03 (.69)	12 (5.5)	11 (4.8)	57 (25.9)	54 (23.4)
택시강도	1.91 (.70)	1.93 (.67)	1 (0.5)	1 (0.5)	22 (10.0)	21 (9.1)
공갈 협박	1.90 (.77)	1.90 (.76)	29 (13.2)	20 (8.7)	72 (32.7)	56 (24.2)
납치/인신매매	1.70 (.75)	1.69 (.65)	2 (0.9)	0 (0.0)	18 (8.2)	10 (4.3)

주. 평균(표준편차). 무응답자를 제외한 수치이다

입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자신의 범죄 피해 경험에서도 소매치기와 주거침입 절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을 고려할 때, 이 두 범죄 유형은 일반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납치/인신매매(6.2%)와 택시강도(9.5%)의 피해자를 알고 있는 응답자들은 10% 미만이었다.

범죄의 피해를 입은 타인을 아는 정도에 있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소매치기와 주거침입 절도 피해자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폭행, 공갈 협박, 노상강도, 성폭행, 택시강도, 납치/인신매매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남녀 성차는 폭행 범죄 피해자 인지도에서만 나타났다. 즉, 남성 응답자들이 여성 응답자들보다 폭행 피해자를 더 많이 알고 있었다, $\chi^2(1, N = 451) = 7.68, p < .004$.

표 5. 범죄 발생시의 신체적 취약성에 대한 남녀 응답자의 반응

범죄명	남성	여성	t 값
택시 강도	2.43 (.78)	2.71 (.78)	3.86 ***
밤길에 만난 불량배의 폭행	2.74 (.77)	3.05 (.76)	4.20 ***
납치/인신매매	2.99 (.94)	3.37 (.83)	4.59 ***
주거침입 절도	2.56 (.82)	2.77 (.82)	2.76 **
소매치기	1.84 (.74)	2.06 (.81)	2.97 **

주. 숫자는 응답자의 반응 평균(표준편차)이다. ** $p < .01$, *** $p < .0001$

① = 전혀 다치지 않을 것이다, ④ = 아주 많이 다칠 것이다.

범죄에 대한 신체적 취약성

택시 강도, 불량배의 폭행, 납치/인신매매, 주거침입 절도, 소매치기 등 물어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 발생 시에 자신이 신체적으로 다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표 5 참고).

환경적 무질서 요인에 대한 지각

집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환경적 무질서 요인들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었다(표 6 참고). 전체 응답자들은 집 근처에 세워둔 자동차가 파손되는 것(M = 1.80)이나 불량배들이 모여 있는 광경(M = 1.84)보다 집 근처에 쓰레기가 버려진 광경을 더 자주 볼 수 있다고 했다(M = 2.43). 응답자의 71.3%가 집 근처에 가로등이 항상 켜져 있다고 했으며 가로등이 전혀 없거나 가끔씩만 켜져 있다고 한 응답자는 8.8%에 불과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대부분이 주변의 물리적 환경이 특별히 범죄에 취약하지는 않은 주거 지역에 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범죄 관련 대중 매체를 접하는 정도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 TV 뉴스를 통해서 범죄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문을 통해서였다. TV 뉴스를 시청

하는 빈도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chi^2(5, N = 453) = 6.75, n.s.$), 다른 매체에 비해서 TV 뉴스에 의존하는 정도는 여성이 훨씬 높았다(표 7 참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신문을 통해서 범죄 뉴스를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신문에서 사회면의 범죄 기사를 읽는 정도도 남성이 더 높았다, $\chi^2(3, N = 453) = 8.29, p < .04$. 범죄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는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빈도에 있어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8 참고). 경찰청 사람들, 사건 25시, 추적 60분 등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적으로 묘사 또는 재연되는 프로그램들로서 조사 당시 매주 방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들의 시청 빈도를 조사하면 범죄에 대한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관심도와 그로 인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을 매주 시청하는 응답자들은 6.8% - 13%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2-3주에 한 번(22% - 39%) 또는 한 두 달에 한 번(37% - 48%) 정도 범죄 관련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정도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6. 환경적 무질서 요인에 대한 지각

	전체 응답자	남	여
낙서가 된 벽	1.96 (.75)	1.95 (.75)	1.97 (.74)
자동차 파손	1.80 (.61)	1.79 (.61)	1.82 (.61)
버려진 쓰레기	2.43 (.83)	2.46 (.85)	2.40 (.81)
불량배 무리	1.84 (.69)	3.57 (.68)	3.66 (.66)
밤에 켜진 가로등	3.62 (.67)	1.84 (.73)	1.85 (.66)

주.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자를 제외한 수치이다

표 7. 범죄 관련 대중 매체를 접하는 정도

		남	여	χ^2
범죄 소식을 주로 접하는 매체	TV 뉴스	125 (57.1)	188 (80.7)	32.8***
	라디오 뉴스	7 (3.2)	6 (2.6)	
	신문	84 (38.4)	36 (15.5)	
	월간지	1 (0.5)	0 (0.0)	
	다른 사람으로부터	2 (0.9)	3 (1.3)	
TV 뉴스 시청	매일	120 (54.5)	143 (61.4)	
	주 4-5회	52 (23.6)	49 (21.0)	
	주 2-3회	39 (17.7)	38 (16.3)	
	주 1회	3 (1.4)	1 (0.4)	
	월 2-3회	4 (1.8)	0 (0.0)	
	전혀 보지 않는다	2 (0.9)	2 (0.9)	
신문 범죄기사 읽기	반드시 본다	50 (22.7)	4 (1.7)	8.29*
	자주 본다	131 (59.5)	63 (27.0)	
	가끔 본다	38 (17.3)	119 (51.1)	
	전혀 보지 않는다	1 (0.5)	47 (20.2)	

주. 숫자는 응답자의 빈도(%)이다. * $p < .05$, *** $p < .0001$

위급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도움에 대한 지각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파출소 또는 경찰서까지 걸어서 가는 거리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의 수를 물어보았다. 파출소 또는 경찰서까지 걸어서 가는 시간 추정 반응은 1분부터 60분까지 다양했다. 평균 소요 시간은 11.4 분(남성 $M = 10.8$ 분, 여성 $M = 11.94$ 분)이었고 표준편차는 8.35였으며 중간값과 최빈값은 10분이었다. 남녀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은 범죄 발생 시에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범죄의 통제에 관여하는 파출소나 경찰서가 자신의 집으로부터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66.8%). 그러

나 10분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편의상의 시간일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파출소가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파출소까지의 거리 추정치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각된 피해 가능성, 신체적 취약성 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을 때 응답자들의 반응 범위는 0명부터 23명까지 다양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4.18명(남성 $M = 4.15$ 명, 여성 $M = 4.21$ 명), 표준편차는 3.19, 중간값은 3명, 최빈값도 3명이었다. 한편,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 응답자도 23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와 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재는 여러 항목들 간에는 아무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질 불안 점수

전체 응답자의 특질 불안 점수의 평균은 7.0, 표준편차는 3.95였다. 남성 응답자($M = 6.68, SD = 4.13$)에 비해서 여성 응답자($M = 7.30, SD = 3.76$)의 불안 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t(441) = -1.65, p < .10$. 이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여성이 성격상 불안을 더 쉽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설명하기 어려움을 시사해준다.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남성 응답자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피해 경험, 지각된 피해 가능성, 신체적 취약성, 범죄 피해자 인지도, 그리고 환경적 무질서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8 참고). 나이, 교육 수

표 8. 변인들간 상관계수

	나이	교육	가족 소득	신문 기사	범죄 두려움	피해 가능성	신체적 취약성	환경적 무질서	TV 시청	피해 경험	피해자 인지도	불안
나이		-.47**	-.07	-.02	-.19**	-.10	-.07	.04	.13	-.04	-.08	-.14*
교육	-.40**		.21**	.13*	.04	.08	.03	-.03	-.01	-.001	.14*	.04
가족 소득	-.07	.03		.22**	.02	.28**	.002	.02	.01	.13	.09	-.01
신문 기사	.16*	-.09	-.01		.02	.15*	.006	-.05	.18*	.07	.10	-.04
범죄 두려움	-.05	.08	-.07	-.07		.30**	.17*	.30**	-.04	.17*	.06	.26**
피해 가능성	-.13*	.09	-.02	-.03	.38**		.15*	.15*	-.06	.34**	.25**	.08
신체적 취약성	.07	-.03	-.08	.04	.25**	.33**		.12	.13	.14*	-.01	-.003
환경적 무질서	-.03	-.01	-.04	.03	.43**	.32**	.29**		.03	.14*	.09	.09
TV 시청	.21**	-.13	-.07	.27**	-.14*	.01	.01	-.03		.07	.08	-.05
피해 경험	.03	-.05	-.10	-.09	.24**	.31**	.08	.22**	.03		.38**	-.06
피해자 인지도	-.17*	.08	.02	.04	.19**	.39**	-.004	.26**	.09	.40**		-.09
불안	-.12	-.02	-.12	-.06	.01	.08	.08	.15*	.07	.10	.07	

주. 대각선 우측은 여성 응답자의 결과이고, 대각선 좌측은 남성 응답자의 결과이다. 최소 $n = 207$, 양방향 검증. * $p < .05$, ** $p < .01$

준, 가족소득 등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과 신문 기사를 읽는 정도 등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요인들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으나 범죄 관련 TV를 시청하는 빈도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범죄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높았으며 본인이 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였다.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지각은 신체적 취약성, 환경적 무질서 요인 및 피해자 인지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환경적 무질서 요인에 대한 지각은 범죄 두려움, 범죄 피해 가능성, 및 신체적 취약성과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남성 응답자들은 환경적 무질서 요인을 많이 지각할수록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고, 피해 가능성도 크다고 느꼈으며, 범죄에 대처하는 신체적 취약성도 심각해진다고 지각하였다.

여성 응답자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들은 나이, 지각된 피해 가능성, 본인의 범죄 피해경험, 환경적 무질서 요인 지각, 신체적 취약성, 성격 불안점수 등이었다. 남성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여성 응답자들도 나이가 많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낮았으며, 자신이 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범죄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자신이 범죄에 대해 신체적으로 방어

할 능력이 약하다고 생각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 그러나 성격 특질 불안점수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점은 남성 응답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결과이다. 그리고 남성들과 달리 여성 응답자들은 가족 소득과 신문의 범죄기사를 읽는 빈도가 범죄 피해 가능성 지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전체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상관관계에 있는 변인들 중 어떤 것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 나이, 교육 수준, 가족 소득, 파출소/경찰서까지의 거리,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 불안 점수, 지각된 범죄 피해 가능성, 신체적 취약성, 범죄 피해 경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지도, 환경적 무질서 요인에 대한 지각, 범죄 관련 TV 시청 정도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표 9.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독립변인	β	R^2	R^2 변화	t 값
환경적 무질서 요인 지각	.35	.12		7.29***
성별	.28	.20	.08	6.28***
지각된 피해 가능성	.25	.26	.06	5.54***
TV 시청 빈도	-.10	.27	.01	-2.22*

주. * $p < .05$, ** $p < .01$, *** $p < .0001$

전체 응답자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준 변인들은 환경적 무질서 요인에 대한 지각, 성별, 지각된 범죄 피해 가능성, 범죄 관련 TV 시청 빈도였다, $R^2 = .24$, $F(6, 394) = 20.97$, $p < .0001$. 즉, 환경적 무질서 요인이 집 근처에 많이 존재한다고 지각할수록, 여성일수록, 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범죄 관련 TV 프로그램을 적게 시청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이 결과에서 이전 연구들(예: Garofalo, 1981)을 바탕으로 예측한 것과 다르게 나타난 점은 응답자의 연령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예측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서양의 연구 결과와 달리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낮다는 선행 연구(예: 최인섭, 김지선, 1997; Ito, 1993)와 일관성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 관련 TV 시청 빈도가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마도 남성의 TV 시청 빈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간에 유의미한 역상관($r = -.14$, $p < .05$)이 있어서 나타난 효과인 듯하다. 이 결과가 통계적인 오염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두 변인간에 실질적인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³⁾

3) 이 결과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 결과가 오류가 아니라 진정한 반응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한 가지 가능한 추측을 해볼 수 있겠다: 대중 매체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신념, 태도, 및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제삼자 효과(third person effect, Davison, 1983)”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제삼자 효과는 대중 매체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신념, 태도, 및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경향성을 말한다. 정치 캠페인 광고, 폭력물, 음주 운전에 대한 공익 광고 등 다양한 매체 내용에서 오류성 합의 효과보다는 제삼자 효과가 나타났다. 제삼자 효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메

남성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반응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으므로 남녀 응답자를 분리하여 각 집단에서 어떤 변인들이 남녀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남성 응답자만을 분리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나이, 교육 수준, 가족 소득, 파출소/경찰서까지의 거리,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 불안 점수, 지각된 범죄 피해 가능성, 신체적 취약성, 범죄 피해 경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지도, 환경적 무질서 요인에 대한 지각, 범죄 관련 TV 시청 정도를 예측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준 변인들은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 주변의 환경적 무질서 요인에 대한 지각, 지각된 범죄 피해 가능성, 파출소/경찰서까지의 거리, 범죄 관련 TV 프로그램 시청 빈도 등이었다, $R^2 = .2993$, $F(4, 187) = 19.97$, $p < .0001$. 남성 응답자는 무질서한 환경 요인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범죄 관련 TV 프로그램 시청 빈도는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오히려 완충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파출소까지의 거리가 멀다고 지각할수록 범죄의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현재로서는 잘 납득이 안가는 것으로서 추후 연구에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⁴⁾

시지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의 효과를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종의 귀인 오류이다(Gunther, 1991).

4) 한 심사자는 범죄 관련 TV 시청 빈도와 파출소까지의 거리 지각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부적관계가 나타난 것이 변인들간의 공선성(colinearity)

KCSI

에 의한 억제(suppression)현상이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였다. 그러나 두 변인들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간의 일차 상관계수(각각 $r = -.14, p < .05$, $r = -.11, p < .10$)도 부적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억제 작용으로 인한 것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이 결과들이 다른 오류에 의한 것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겠다.

표 10. 남성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독립변인	β	R^2	R^2 변화	t 값
환경적 무질서 요인 지각	.43	.19		6.59***
지각된 피해 가능성	.27	.25	.06	4.09***
과출소까지의 거리	-.15	.27	.02	-2.38**
범죄 관련 TV 시청 빈도	-.16	.30	.03	-2.59**

주. * $p < .05$, ** $p < .01$, *** $p < .0001$

표 11. 여성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한 독립변인	β	R^2	R^2 변화	t 값
지각된 피해 가능성	.28	.08		4.19***
환경적 무질서 요인 지각	.23	.13	.05	3.55***
불안 점수	.22	.18	.05	3.47***
나이	-.15	.21	.03	-2.38**

주. ** $p < .001$, *** $p < .0001$

여성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여성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남성 응답자들과 동일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준 변인들은 환경적 무질서 요인에 대한 지각, 불안 특질 점수, 나이 등이었다, $R^2 = .2069$, $F(4, 198) = 12.91$, $p < .0001$. 표 11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범죄 피해 가능성과 환경적 무질서 요인에 대한 지각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촉진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남성의 결과와 유사했다. 그러나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불안 점수의 효과였다. 즉, 성격 특성상 일반적으로 불안감을 강하게 느끼는 여성 응답자들은 범죄에 대해서도 더 불안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여성일수록 범죄에 대해서 덜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⁵⁾

5) 남녀 모두에게서 범죄 피해 가능성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예측해주는 변인이었다. 남녀의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지각을 예측해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남성 응답자의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지각은 범죄 피해 경험을 알고 있는 정도, 범죄 발생시의 신체적 취약성, 환경적 무질서 요인 등이 유의미하게 예측해주었으며($R^2 = .2512$, $F(3, 189) = 21.13$, $p < .0001$) 여성의 범죄 피해 가능성 지각은 범죄 피해 경험, 수입, 환경적 무질서 요인에 대한 지각 등이 유의미하게 예측해주었다($R^2 = .1904$, $F(3, 199) = 15.59$, $p < .0001$). 신체적 취약성은 여성의 범죄 피해 가능성에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여성에게서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하였고 오히려 남성에게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남성의 범죄 피해 가능성 지각은 피해자에 대한 인지도와 신체적 취약성 및 환경적 무질서 요인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여성의 피해 가능성 지각은 신체적 취약성보다는 자신의 피해 경험 정도와 경제 수준을 바탕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여성은 얼마나 다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 과거의 피해 경험이나 불안에 민감한 성격 특징 때문에 직접적으로 범죄 피해 가능성과 두려움을 느끼고, 반면에 남성은 자신의 방어능력이나 통제 기제의 가용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의 메개를 받아서 범죄 피해 가능성과 두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남녀 453 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 변인들을 설문 조사하여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성격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일상 활동에 대해서 느끼는 안전감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지표로 삼고, 성별, 연령, 범죄 피해 가능성의 지각, 피해 경험, 피해자 인지도, 범죄 발생에 대한 신체적 취약성, 환경적 무질서 요인에 대한 지각, 범죄 관련 대중 매체와의 접촉 정도, 파출소와의 거리, 성격불안 특성 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과 남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서로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 설명됨을 보여주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볼 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지각과 환경적 무질서 요인의 지각에 의해서 가장 일관성 있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의 범죄 피해 경험, 피해자 인지도, 범죄에 대한 신체적 취약성, 집 주변의 무질서한 환경 요인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두드러지게 만들고, 그것은 다시 일상 활동에 대한 안전감을 감소시켜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차후에 좀 더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 경로 분석 등을 활용하여 검증될 필요가 있다.

범죄에 대한 남성의 두려움과 여성의 두려움은 질적으로 유사한 측면과 상이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남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난 예측변인은 환경적 무질서 요인에 대한 지각과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지각이었다. 주거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접하는 낙서, 쓰레기, 자동차 파손, 불량배 등의 무질서한 환경 요인이 활동하기에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생각에 영향을 주었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 가능성 및 파출소까지의 거리 등 좀 더 구체적인 물리적 변인들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불안 점수와 나이가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 좀 더 심리적인 요인들에 근거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지금까지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학적 관점에서 외적 변인들을 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외적 변인들 이외에 개인차 변인으로서 성격 특질로서의 불안 수준을 살펴보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격 특질로서의 불안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불안으로서 범죄 피해 경험, 주변 환경 요인 등 객관화할 수 있는 변인들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가능성, 신체적 취약성 지각 등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변인들과도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할 때에 외적 환경 요인과 경험 등에 의해서 생긴 근거 있는 불안과 다소 근거가 미약한 기질적 불안을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과 여성은 특질 불안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런데 남성에게서는 특질 불안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여성 응답자들에게서는 특질 불안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특질 불안이 직접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지는 않고 대신에 방어 능력이나 통제 기

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제의 가용성 등 다른 주관적인 요인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성격 특질 불안이 직접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성격이 다소 다른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Maxfield(1984)는 나이를 신체적 취약성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라고 보고 환경적 무질서 요인은 위험 요인의 간접적 척도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환경의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 신체적 취약성, 범죄 피해를 입은 심각한 결과 예견, 그리고 성격 특질적 불안감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표 11의 회귀분석 결과 참고).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성폭행 등 특정 범죄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남성보다 더 강하게 느낀다는 가설보다는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구조와 기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게 느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여성임으로 인해서 안전의 위협을 느껴서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자기 보호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은 자신이 취약함을 확인시켜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여성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로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자신을 덜 노출시키고 따라서 여성 범죄 피해율의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범죄 피해 경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예측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범죄의 두려움이 범죄 피해를 예측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치게 높다면 사람들의 사회 생활은 크게 위축될 것이며 주관적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성이 남

성에 비해서 범죄 예방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성이 경험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의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남녀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여성의 활동을 위축되게 만드는 요인들과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어서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표본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음에서 오는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문제이다. 연구 예산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편의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나온 결과가 서울 시민에게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자기보고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조사 지역의 객관적 범죄 지표들(각종 범죄 발생률, 주거 환경의 마모율 등)을 조사하지 못한 것도 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추후에 좀 더 체계적인 표집절차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재확인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지역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인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요인들,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는 복잡한 기제에 의해서 발생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중이 체감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과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감소시키려는 정책적인 노력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역행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쉽다. 실제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 할지, 경찰과 사법당국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주도적인 노력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인지 등의 방향 설정은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연구에 바탕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순진, 최영신. (2000).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영희, 김준호, 최인섭. (1992).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병기, 이기웅. (1995). 범죄보도가 시민의 범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은경. (1997).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1권 제2호, 29-51.
- 최인섭, 김지선. (1997).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박순진. (1995).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endig, A. W. (1956). The development of the short form of the Manifest Anxiet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0, 384.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ulletin: Criminal Victimization (1988). U. S.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 C.
- Davison, W. P. (1983). 'The third-person effect in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7, 1-15.
- Garofalo, J. (1977). *Public opinion about crime: The attitudes of victims and non-victims in selected cities*. National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nd Statistics Service,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 C.
- Garofalo, J. (1979). Victimization and the fear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6, 80-97.
- Garofalo, J. (1981). The fear of crime: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2, 839-357.
- Gunther, A.G. (1991). What we think others think: Cause and consequence in the third person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18, 355-372.)
- Ito, K. (1993). Research on the fear of crime: Perceptions and realities of crime in Japan. *Crime and Delinquency*, 39, 385-392.
- Killias, M. (1990). Vulnerability: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a key variable in the genesis of fear of crime. *Violence and Victims*, 5, 97-108.
- Lewis, D. A., & Maxfield, M. G. (1980). Fear in the neighborhoods: An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6, 160-189.
- Maxfield, M. (1984). The limits of vulnerability in explaining fear of crime: A comparative neighborhood analysi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 233-250.
- Riger, S., Gordon, M. T., & LeBailly, R. (1978). Women's fear of crime: From blaming to restricting the victim.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3, 274-284.
- Taylor, R. B., & Hale, M. (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7, 151-189.



Warr, M. (1984). Fear of victimization: Why are women and the elderly more afraid. *Social Science Quarterly*, 65, 681-702.

1 차원고접수일 : 2002. 9. 4.

최종원고접수일 : 2003. 2. 28.

Sex Differences in the Fear of Crime

Eunkyung Jo

Hallym University

A survey of 220 male and 233 female residents of Seoul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why women appeared to be more fearful of crime than men. As expected, female respondents reported higher levels of fear of crime and perceived physical vulnerability to crime. Incivility factors in the neighborhood and perceived possibility of criminal victimiz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fear of crime for both male and female respondents. For women more psychological variables such as trait anxiety and age were other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ir fear of crime, whereas the distance to police station and frequency of watching crime-related TV program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men's fear of crime.

key words : fear of crime, sex difference